

No.20150114-001

제목: 그녀의 가계부

저자: 하라다 히카

페이지수: 221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1월 18일



<내용소개>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며 이어져온 여성들의 유대감을 다룬 이야기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가족일 것이다. 가족이라는 유대감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같이 지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오직 가족뿐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로 지내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가족 간의 유대감 상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반쪽짜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 대신에 증오와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은 존재하며 그런 힘든 상황일수록 그 빛은 생생하게 우리들을 감싸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리리는 몸이 불편한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딸을 낳아야 했던 리리에게 있어 가족은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았다. 싱글맘으로 지내는 딸을 그대로 방치한 리리의 어머니 토모코 역시 가족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토모코 역시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딸에게도 각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리리에게 어느 날 편지와 함께 낡은 가계부가 날아온다. 가계부에는 리리의 할머니이자 토모코의 어머니인 카즈의 생활이 적혀있었는데 금슬이 좋았던 카즈 부부는 태평양 전쟁 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카즈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도피를 떠나고 끝내 동반 자살을 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설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상실한 주인공이 어려운 사정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할머니의 짧은 일기가 적힌 가계부를 보면서 유대감을 되찾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는 내용이다. 독자들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초반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마

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 또한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자신의 자식이라도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독자들에게 가족의 유대감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저자소개>

하라다 히카

1970 년 일본 카나가와현 출생. 2006 년 NHK 라디오드라마대상에서 최우수작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인생 옥션' 등이 있다.

No.20150114-002

제목: 소행 조사관

저자: 사사모토 료헤이

페이지수: 484

장르: 소설

출간일: 2011년 8월 10일



<내용소개>

경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외로운 투쟁을 그린 이야기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주는 사건이 있다. 작년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방위 산업 비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공금횡령 같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표적인 예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가족과 같은 친밀감으로 뭉치는 팀과는 달리 조직은 몸집이 거대해 질수록 내부비리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일수록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사팀이 있다. 같은 조직에 몸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상 상대방을 감시하고 뒤를 조사해야 하는 이들을 보는 눈은 그리 곱지 않다. 그리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악적인 존재인 감사팀은 때론 생각하지도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내부비리가 벌어지는 곳은 단지 회사만이 아니다. 심지어 경찰 같은 정의가 실천되어야 할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소설은 그런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경찰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밝히기 위해 싸우는 어느 조사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혼고는 오랜 세월 동안 탐정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무장한 경찰청 소속의 감찰관이다. 일명 소행 조사관이라고 불리는 감찰관들은 경찰의 부정행위나 비리를 조사하는 경찰안의 경찰인 셈이다. 자신보다 먼저 경찰이 되었던 옛 친구의 추천으로 소행 조사관이 된 혼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경찰에 몸 담고 있는 형사와 어느 중국인 여성 간의 불륜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인 여성의 여동생이 살해된 순간부터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진짜 범인을 찾아 수사를 진행하던 혼고는 이 사건에 경찰청 내부에 있는 수뇌부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적절한 반전을 지닌 미스터리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가족간의 유대를 다룬 깊이 있는 내용으로 호평을 받은 소설, '피보다 진한'의 작가인 사사모토 료헤이의 '소행 조사관'은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필력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 같은 제목의 시리즈까지 연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소설은 미스터리가 주는 짜릿한 재미와 함께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까지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독서

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작품이다.

<저자소개>

사사모토 료헤이

1951년 일본 치바현 출생. 릿쿄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빅 브라더를 쏘라!'로 문단에 데뷔했다. 2001년에는 '피보단 진한'으로 제 18회 산토리 미스터리 대상과 독자상을 같이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소행 조사관 시리즈'가 있다.

No.20150114-003

제목: 집안 일을 덜어내는 방법: 말기고 나누는 것으로 더 빛나는 일상

저자: 오사와 카즈미

페이지수: 224

장르: 생활 / 수납, 정리

출간일: 2014년 12월 11일



<내용소개>

직장과 집안 일,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는 노하우가 적혀있는 참고서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여성들에게 집안 일을 떠안게 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 모두 집안 일 말고도 밖에 나가 생계를 꾸려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집안 일 만큼은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인 관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 받는 아내를 위해 함께 음식장만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으며 식사준비와 청소 같은 평범한 집안 일도 서로 분담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찾아온 변화의 바람은 많은 커리어 우먼들에게 집안 일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아직도 집안 일에 붙잡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일과 집안 일의 동시에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집안 일의 적절한 분담과 함께 집안 일을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집에서 디자인 업무와 가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저자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집안 일 중에는 덜어낼 군살이 많다고 주장한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쓸데없는 집안 일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집안 일을 단지 짐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일과 가사를 동시에 능숙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그 군살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군살을 덜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구성된 집안 일을 만들어 내었다고 한들 그것을 혼자서만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 간에 가사를 분담하는 작업이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습관화되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집안 일을 정리할 수 있으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각자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치고 싶은 마음은 남녀 모두가 동일하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루기 보다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빼는 것이 더욱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집안 일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가사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

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목차소개>

제1장: 집안 일의 상식을 버리다

(집안 일을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다 등)

제2장: 집안 일 이라는 발상을 버리다

(집안 일인데 집안 일이 아니게 되는 발상의 전환 등)

제3장: 집안 일 중 90%는 덜어낼 수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집안 일과 할 수 없는 집안 일은 덜어내는 것이 좋다 등)

제4장: 가족에게 집안 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라

(상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가족은 집안 일에 무관심 할 수 밖에 없다 등)

제5장: 함께 즐기면서 집안 일을 가르치다

(가족과 함께 집안 일을 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등)

제6장: 집안 일을 맡기면서 덜어낸다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단계가 있다 등)

제7장: 가족이 스스로 나서서 귀찮음을 덜 수 있다

(통일 된 가족 간의 룰을 만들면 귀찮음을 덜 수 있다 등)

<저자소개>

오사와 카즈미

1974년 일본 오카야마현 출생. 의류 디자이너로 14년 간 회사에서 근무했다. 2010년 가정과 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다른 기업에게 들어오는 디자인 상품에 대한 개발을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집안 회사를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No.20150114-004

제목: 자신의 벽을 허무는 방법

저자: 시오나기 요스케

페이지수: 207

장르: 자기개발

출간일: 2014년 12월 18일



<내용소개>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기 위한 조언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성공과 좌절을 겪으며 성장해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성장이 멈췄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전같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만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때도 예전보다 적어져서 홀로 지내는 때가 많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은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병, 즉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자기 자신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세우는 원인을 자의식 과잉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식이 지나치게 많은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자의식 과잉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써주는 성격이 자신을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매뉴얼 대로 살아가는 성격이 그 사람을 단지 귀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의식 과잉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독한 내면의 수행이 아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고 있던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속마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 책은 결과 속 모습을 모두 바꿀 수 있는 저자의 조언으로 가득 차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고 맞서려는 마음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상대방이 자신에 맞춰서 바뀌는 것을 바라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이 책은 자칫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힌트를 제

공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그 결심을 버리면 일이 10배는 즐거워진다!

(고민하는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꿔라 /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등)

제2장: 당신의 일상을 엮매는 그 상식을 잠시 손에서 놓아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리셋은 거실의 리셋부터 시작한다 / 이벤트는 참가보다는 주관하는데 의미가 있다 등)

제3장: 괴로운 인간관계는 자의식과잉에서 나옵니다

(친구와 적극적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라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으로 감성을 갈고 닦아라 등)

제4장: 마음의 경계를 걷어내라! 일상 중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방법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옷을 바꿔라 / 아는 사람이 없는 이벤트에 혼자서 참가해라 등)

제5장: 인기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필사의 기술

(인기남이라면 반드시 거치는 통과 의례 /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좁힌다 등)

제6장: 수비에 들어간 자신을 철저히 깨트릴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을 상상해본다 / 일부러 생활리듬을 바꿔본다 등)

<저자소개>

시오나기 요스케

1970 년 일본 출생.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를 졸업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알리기 위해 잡지와 신문 그리고 라디오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좋은 사람' 시리즈가 있다.

No.20150114-005

제목: NY Share House Style

저자: 요시후지 미치코

페이지수: 143

장르: 인테리어

출간일: 2014년 9월 29일



<내용소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 셰어하우스의 모든 것

급속한 산업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향하지만 주거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셰어하우스라는 다소 낯선 형태의 주거형식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은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공간으로 쓰는 의미인 셰어하우스는 사실 외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된 생활방식이다. 한국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유럽권은 물론이거니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90년대부터 셰어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원 수에 따라 월세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무엇보다 매력이지만 이왕 같이 지내도록 결정한 만큼 서로의 감성을 하나로 묶어 혼자 지내는 때 보다 더욱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

이 책은 미국 셰어하우스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은 그 명성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하다. 관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은 그저 혼란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융합시켜서 한 공간 안에 담아 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셰어하우스의 모습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다. 깔끔한 스타일의 팬트 하우스부터 기발한 아이디어로 실내인데도 마치 캠핑을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놓은 개성 넘치는 집 등 즐거운 셰어하우스 라이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상 셰어하우스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따뜻함과 함께 어울리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그런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것이다. 셰어하우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타이틀로 추천한다.

제5장: Bohemian Rooms

(뛰어난 예술작품과 함께 지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공간 등)

<저자소개>

요시후지 미치코

일본에 있는 광고대리점에 근무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지내고 있다.

No.20150114-006

제목: 먹는 수학

저자: 카미나가 마사히로

페이지수: 254

장르: 수학 에세이

출간일: 2010년 11월 15일



<내용소개>

살아가는데 전혀 쓸모 없다고 여긴 수학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주는 교과서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고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문을 고른다면 과연 어떤 것들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화학 그리고 수학을 꼽을 것이다. 특히나 물리학의
공식을 증명하고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인 수학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되고 발전해가는 몇 안 되는 학문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런 명성에 비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게다가 물리학과 화학과는 다르게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없는
순수학문인 수학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
업난에서 찾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면서 이끌어줄
의지와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바로 능숙하게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보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수학 같은 순수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말 그대로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이 책의 저자는 대학 교수와 일반 회사의 연구원 생활을 번갈아 가면
서 느낀 실용적인 수학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입사 후 처음으로 받은 업무
는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수학 전공서보다 훨씬 쉽게 느껴진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공
부를 끝낸 글쓴이는 수학전공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있었다. 하지만 저자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달
성시킬 수 없었으며 이내 회사에서 쓸모 없는 짐짝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자는 바코드나 T머니 같은 보다 실용적인 곳에 수학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학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수학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나 어려운 공식을 이해시켜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순수한 학문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학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
들에게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어릴 적 학교에 가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싫어했던 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온 한 문제의 수학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

있듯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려운 수학이 아닌 우리 곁에 있는 수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잃지 않을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쓸모 없는 수학

(오만과 편견 / 빠져나갈 구실을 찾지 말고 만들어 내라! 등)

제1장: 도움이 되는 수학입문

(대수학과 정수론 - T머니 터치에서 이뤄지는 비밀스런 이야기 등)

제2장: 어떤 수학을 좋아하세요?

(견딜 수 없는 수학의 무게 - 그 수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어렵다 등)

제3장: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

(그래프라는 이름의 사고방식 - 인간관계가 보이는 시대)

종장: 아카데미 스마트 에서 스트리트 스마트로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엔진을 멈추지 마라 등)

<저자소개>

카미나가 마사히로

1967 년 일본 도쿄 출생. 도쿄 이과대학 이학부를 졸업한 후 교토대학 대학원 이학연구과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이후 회사 연구원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토호쿠대학 전기정보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No.20150114-007

제목: 세계의 엘리트들의 조건 - 레질리언스(회복 탄력성)

저자: 쿠제 코우지

페이지수: 224

장르: 자기계발 / 심리학

출간일: 2014년 2월 28일



<내용소개>

세계적인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레질리언스(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식과 단련방법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능률한 리더와 여린 리더다. 여기서 말하는 능률한 리더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 이런 엘리트는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회사 내외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반면 좋은 학력과 높은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기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을뿐더러 험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기 때문에 끝내 좌절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긍정 심리학의 한 분야인 레질리언스(회복 탄력성)는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보다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역사를 통틀어서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항상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자신이 겪었던 수 많은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레질리언스(회복 탄력성)의 강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한 후 습관처럼 몸에 베이도록 하기 위해 독자들이 해야 할 사항들도 자세하게 적어두었다. 또한 이론적인 설명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적어두어서 저자의 설명이 단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인재의 기준을 표면적인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의 강함을 보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재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인 레질리언스(회복 탄력성)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남들보다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방법이 적혀있는 이 책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를 배우기 전에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란 무엇인가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이해하다 등)

제1장: 첫 번째 기술 -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 오히려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 등)

제2장: 두 번째 기술 - 쓸데없는 확신을 포섭하자

(행복의 열쇠를 짚 수 있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다 등)

제3장: 세 번째 기술 - '하면 된다!'라는 이름의 자신감을 과학적으로 몸에 익히자

(자신감은 과학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 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이 차이를 만든다 등)

제4장: 네 번째 기술 - 자신의 강점을 살리자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다! / 일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자신의 강점을 살려라! 등)

제5장: 다섯 번째 기술 -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서포터를 만들어라

(오키나와 어느 마을의 장수 비결 / 최고의 컨설턴트가 맞본 최대의 역경 등)

제6장: 여섯 번째 기술 -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감사'의 감정 /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등)

제7장: 일곱 번째 기술 - 뼈아픈 경험에서 의미를 배워라

(아수라장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사람 / 위기를 넘어선 후 이론 변영 등)

<저자소개>

쿠제 코우지

1972 년 일본 기후현 출생. 게이오대학 졸업 후 화장품사업 마케팅 책임자의 자격으로 P&G 에 입사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긍정 심리학 교실을 설립했으며 지금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No.20150114-008

제목: 뽀뽀하는 생활

저자: 카네코 유키코

페이지수: 20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4년 1월 8일



<내용소개>

정리와 버림을 통해 얻은 자신과 딱 맞는 물건과 즐겁게 생활하는 노하우가 적힌 에세이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등산을 하기로 맘 먹은 A씨는 지금 산 중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탓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겠거니 생각하면서 등을 짓누르는 묵직한 배낭을 다시 고쳐 메었다. 이윽고 정상을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배낭의 무게가 처음 출발했을 때와 그다지 바뀐 게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챙긴 많은 물건은 마음이 든든했지만 그 때문에 무거워진 무게 때문에 마음껏 등산을 즐기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은 바야흐로 소비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덕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건을 사게 되고 집안 여기저기에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구입한 물건을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심이 멀어지면 수납장에 넣어두게 된다. 버리지는 않고 사기만 하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은 수납장만 한 가득 들어서게 된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샀던 물건들이 오히려 반대로 쓸데없는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을 물건에 대한 애착과 의존성에서 찾고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애착으로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있다. 책의 처음부분은 저자가 지향하는 뽀뽀하는 생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독자들이 저자와 같은 뽀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우선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한 편 필요한 물건 이외에 전부 버리는 생활에서 찾아오는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도저히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차라리 꺼내놓고 망가질 때까지 쓰라는 저자의 주장은 물건을 아낀다고 고이 모셔두는 사람들이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충동구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뽀뽀하는 생활을 지향하자

(물건이 없어도 괜찮아 / 정리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물건이 많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걸까? 등)

제2장: 뽀뽀하는 생활 - 검증

(나에게 필요한 물건은 과연 뭘까? /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돈, 시간 그리고 공간이 든다 등)

제3장: 뽀뽀하는 생활 - 버림

(버릴 수 없으면 망가질 때까지 써라 / 이런 것들도 버립시다 등)

제4장: 뽀뽀하는 생활 - 부작용 방지

(사야 한다면 이런 걸 사라 / 수납장을 사지 말고 선반을 늘려라 등)

제5장: 뽀뽀하는 생활이 나를 바꾼다

(뽀뽀를 하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뽀뽀하는 생활은 계속 변화하는 생활 등)

<저자소개>

카네코 유키코

1965 년 일본 출생. 어릴 적부터 심플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학생시절부터 10 년 간 자취하면서 착안한 심플 라이프를 출판사에 투고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가지고 있지 않는 생활' 등이 있다.

No.20150114-009

제목: 바라는 대로 되고 싶은 둘

저자: 레이쥔 히로코

페이지수: 222

장르: 청소년 소설

출간일: 2014년 5월 24일



<내용소개>

콤플렉스를 알고 있기에 더욱 응원하고 싶은, 소꿉친구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가녀린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여자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전통요리에 매력을 느끼고 자신도 그런 멋진 요리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되고 싶은 멋진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면 스스로 꿈을 접을지도 모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무렵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는 때 이고 아직 여물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 외모에 의한 콤플렉스가 가장 심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창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꿈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진 두 명의 소꿉친구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래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던 두 사람은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두 사람은 왠지 모르게 서먹한 관계가 되고 얼굴을 봐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서로의 장래희망을 묻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평균이상의 큰 키에 기다란 팔과 다리 그리고 곱슬머리를 지닌 치에리는 벌써부터 주부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자신의 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치에리의 꿈은 모두의 주목을 받는 모델이었지만 자신의 이런 몸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에리의 소꿉친구인 무기는 평균 이하의 키에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진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의 꿈은 건장한 남자들의 이미지가 강한 일본 전통요리 연구가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오동통하고 작은 체구의 몸 때문에 마음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신의 장래희망을 말하기 꺼려하지만 발표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차소개>

- 제1장: 서로 엮이고 싶지 않은 두 사람
- 제2장: 장래에 되고 싶은 것이 없는 두 사람
- 제3장: 예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두 사람
- 제4장: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닌 두 사람
- 제5장: 전혀 안정감이 없는 두 사람
- 제6장: 과제를 시작한 두 사람
- 제7장: 연애 어드바이스를 하는 두 사람
- 제8장: 식당의 두 사람
- 제9장: 스위치가 켜진 두 사람
- 제10장: 커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두 사람?
- 제11장: 장래에 되고 싶은 것을 정한 두 사람
- 제12장: 장래희망을 발표하는 두 사람

<저자소개>

레이조 히로코

1964 년 일본 오사카 출생. 교토예술대학 졸업 후 1990 년 코단샤 아동문학신인상에 응모한 작품이 주목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주요 작품으로 '웃으며 자유연구' 등이 있다.

No.20150114-010

제목: 목욕탕 도깨비

저자: 타무라 에미코

페이지수: 30

장르: 아동 동화책

출간일: 2008년 10월 15일



<내용소개>

혼자서는 무서웠던 목욕이 즐거운 시간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동화책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 줄 존재가 없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을 떨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면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혼자서 목욕탕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동화는 혼자 목욕을 하고 있으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도깨비들을 무서워했던 아이가 어느 샌가 친구가 되어 신나는 한 때를 보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무서운 마음을 넘어서 도깨비들과 친구가 된 아이들은 이제 혼자서 하는 목욕을 더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탓군은 혼자서 하는 목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놓으면 언제 귀신의 얼굴이 보일지 모르고 샤워기를 틀면 물 대신 물방울 모양의 도깨비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욕조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탓군 옆으로 어느 샌가 도깨비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도깨비에게 이끌려 욕조 안에 있는 마을로 가게 된 탓군은 자기를 보며 기뻐하는 도깨비들과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이후 친구들과 바가지 레이스, 고무오리 보트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탓군은 이제 더 이상 혼자 하는 목욕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자소개>

타무라 에미코

일본 도쿄 출생. 1994년에 단색판화로 첫 개인전을 했다. 이후 지금까지 연 1회씩 하는 개인전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한 밤중의 동물원' 등이 있다.

< 본문이미지 >

